

보충시정질문(서면)

박노설 의원

□ 질 문

○ 중동소각장의 바닥재치리에 대해 부여의 전진산업에서 바닥재를 원료로 하여 벽돌 등을 생산하는데 어떠한 재료들과 혼합하는 것인지? 또한 벽돌 생산과정을 설명 바람.

그리고 소각재에 함유된 중금속성분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를 하는지 밝혀달라.

소각재에 함유된 중금속을 그대로 다른 원료와 혼합하여 벽돌 등을 생산하여 건축에 이용될 경우 벽돌 등에서 중금속 성분이 용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진산업에서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바라며, 중금속 성분에 대해 아무런 처리없이 벽돌 등을 생산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또는 환경관련법상 저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람.

○ 상동지구 세입자 문제에 대해

1. 토공에서 택지개발사업시 세입자들을 위한 가이주단지 조성사례는 분당택지개발사업시 1991년 10월에 69세대를 설치해 주었으며 고양시 행신지구에서도 1995년 15세대, 용인시 수지동에서도 1996년 30여 세대가 있었다.

또한 시흥시에서도 택지개발사업시 세입자들의 임시거주지를 수차례 마련해준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보더라도 부천시보다 적극적으로 토공과 협력하여 세입자 문제해결에 나서 주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부천시의 대책을 밝혀달라.

2. 지난해 6·4지방선거시 원혜영 시장도 개발지역의 철거민들을 위한 임시 이주단지를 약속한 바 있는데 이의 약속을 이행하고 철거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임시 이주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람.